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 만민에게 열려 있는 구원 (마태 15, 21-28)

## 특별부흥성회 주님의영광교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가 특별부흥성회를 연다. 이 행사는 박순애 전도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5월 2일-5월 5일까지 이 교회의 비전센터(분당)에서 열린다.

부흥성회 일정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2일(목) 오후 7시 30분, 절대절망, 절대희망  
3일(금) 오후 7시 30분, 눈물의 축복  
4일(토) 오후 7시 30분, 기적 같은 축복  
5일(일) 오후 1시, 인내하는 자의 축복

교회 측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은혜의 시간을 누리기를 바란다.” 면서 “주변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해 전도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고 전했다.

문의: (213) 864-1925  
bibletimes7@gmail.com

## ‘Jesus Kids’ 세미나 홀러톤장로교회

주일학교 전문 교육기관인 ‘지저스 키즈 (Jesus Kidz, 대표 에스더 임)’ 가 5월 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홀러톤 장로교회(담임목사 노진걸,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지저스 키즈의 대표인 에스더 임 전도사가 주일학교에서 운영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인 찬양과 예배, 성경공부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설교와 성경공부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풍선 장식 방법도 실습한다. 풍선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풍선에 바람을 넣는 기구는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아득한 옛날에 세상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구원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천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구원이 꼭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을 통해서 만민을 위한 구원이 하느님의 본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만민에 하느님께서 어떤 종족이나 지역에 묶이고 한정된 신이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느님’ 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상실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서에서는 바로 하느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은총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출신 성분이나 특정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계명에 충실하면 어떤 이방인도 성전에 모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520년경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미 구원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달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만이 하느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충실과 배신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확대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띠로’ 와 ‘시돈’ 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가파르나움에서 약 50km 떨어진 서북쪽 해안지방으로서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곳은 특히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까지 가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때



시아로 영접치 않는 모순과는 달리 그곳에 사는 이방인 여자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 뵈고 구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개’ 라고까지 천사 받는 것을 개의치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방인 여자를 무시하셨느냐 라는 내용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본래 이방인을 천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방인 여인의 진실된 믿음을 제자들 앞에 끌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 신앙과 용기를 배우고 또한 앞으로 전개될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구원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단지 천주교회 안에서 세례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

리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구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구원은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누렸던 특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은총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느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개신교 신자들과도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특권과 커다란 은총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많은 것을 암시해 줍니다. 아무리 무시당해도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인,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낮출 수 있고 예수님을 신뢰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구원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늘 간직하도록 합시다.

-강길웅 신부-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GOD IS LOVE 1JOHN 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